

서울시, 남북 대화동력 이어간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서울시는 '남북평화관광지문단'을 구성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 노력을 이어간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북 평화관광지문단(이하 지문단)을 구성해 지난 8일 위촉식을 겸한 첫회의를 진행했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됐을 때 가장 활기를 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남북간 교류 활성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문단은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인사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김상태 선임연구원,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남북평화관광협의회 회장 정하용 등 13명이 위촉직으로 임명됐다.

당연직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남북협력담당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5명이다. 지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남북 평화관광지문단 결성...총 18명으로 구성

선제적 남북 관광 교류 준비 바람직 공감대 형성

이들은 ▲서울지역 평화관광자원 발굴 ▲서울-평양 개성간 관광 교류 협력사업 발굴 ▲남북 관광 관련 신규 추진사업 발굴 ▲남북 평화관광 주간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지문단 ▲기타 남북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미 지문단 첫 회의는 비공개로 지난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시는 이날 남북평화관광 지문단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문위원들은 남북 평화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지문, 남북평화관광 주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선제적

으로 남북 관광 교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위임들간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남북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준비하는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서울-평양-베 이징 등까지 (관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할을 해야 하고, JSA(공동경비구역)나 DMZ(비무장지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문단은 위촉식이 진행된 지난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운영된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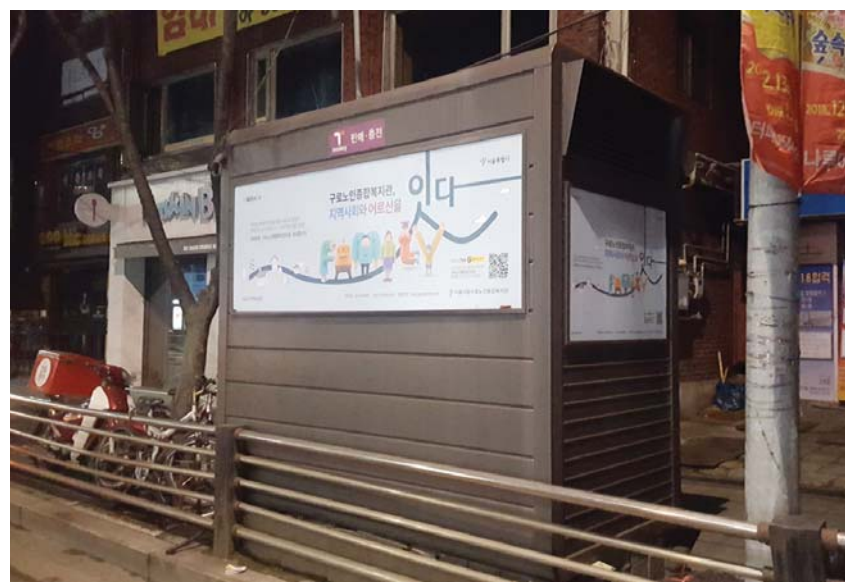
씩 열린다. 다만 필요에 따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문단 회의 방식은 의제에 대한 자유 토론 후 최종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북교류 활성화 시기를 대비해 사전에 어떤 관광 프로그램이 좋을지 순수하게 남북 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문단을 구성했다"며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오는데, 이들이 DMZ(비무장지대)나 JSA(공동경비구역)투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들을 위해 선호할 만한 남북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지 내부적으로 논의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강원도 고성, 철원 지역과 별도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뉴스스



서울시, 공익단체·소상공인 무료광고

내일부터 4월12일까지 희망광고 소재 공모

서울시가 올해도 공익단체·소상공인에 무료공고를 해준다.

서울시는 12일부터 4월12일까지 올해 제1회 희망광고 소재공모를 진행한다. 2회에 걸쳐 40개 단체·기업이 지원을 받는다.

시는 올해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희망광고 소재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스타트업의 경우 동점자 처리 등에 우대·선정할 계획이다.

희망광고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단체,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이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됐던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공모소재는 기부·나눔·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과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스토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이 있는 사안이 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과 영상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 시간 늘고 스트레스 줄고"

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된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로 자녀와의 시간이 증가하고 가사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1월23일부터 29일까지 가사서비스 이용자 198명(남성 27명·여성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결과다.

10일 시에 따르면 가사서비스를 통해 변화된 점(중복응답)으로 위생상태가 좋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등 삶의 질이 향상이 37.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시간 감소(33.3%), 자녀 공부를 도와주고 노는 시간과 대화할 시간 증가(28.2%) 등의 순이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일·가사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7.52점(10점 만점)으로 높았다면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4.78점으로 감

소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8.02점에서 5.28점으로 3.34점 줄어들었다.

시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07가구였다. 총 5259회를 제공받았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3인 기준 451만2000원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주 1회, 회당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설거지가 제공된다. 본인 부담 이용요금은 회당 5000원이다.

시는 올해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02-861-3012) 또는 홈페이지(seoulhambumo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스

제2의 대중빌딩 사태 방지 서울시 20년이상 건물 직접점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중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붕괴 위험으로 불안감을 안겼던 서울 강남구 대중빌딩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축물을 직접 점검한다.

시가 최근 공개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5월부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자치구가 직접 점검한다.

각 구청은 20년 이상 경과된 일

의관리대상 건축물을 직권으로 점검한다.

서울 시내 전체 건축물 61만여동 중 54만여동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다. 54만여동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물은 42만여동에 달한다. 20~30년 된 건물이 17만5144동, 30~40년이 8만5911동, 40~50년이 7만3091동, 50년 이상이 8만1804동이다.

이 건물 중 자치구가 집중 점검

할 대상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0년이 지난 건축물 ▲30년이 경과된 조적조·블록조·연와조 등 건축물로서 수직 증축된 건축물 ▲2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구조 조적 내려 저하가 의심되는 건축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여건변화로 구역지정이 해제된 지역 내 건축물 ▲대지 내 급경사지 등 주택사면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안전점검은 2단계로 이뤄진다. 구는 1단계 서류점검으로 안전 점검 대상을 확정된 뒤 2단계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2인1조로 점검을 점검해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을 매긴다.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 의견청취, 마감재 해체, 전자내시경 활용 등이 병행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소유자(관리자)에게 안내 조치된다. 재난취약건축물로 판명되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지정된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